

H2KOREA 일간 수소 이슈 브리핑

- '24.6.25 H2KOREA 정책지원실 -

- ◇ 작일 언론보도 내용을 기준으로, 국내·외 수소에너지 및 수소경제와 관련한 주요 이슈를 요약 배포함

I. 국내

□ 산업계

- **현대차 전주공장, '수소 모빌리티' 메카로 거듭난다**(24.6.24, 한국경제)
 - 2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이동석 현대차 대표는 최근 노동조합 간부들과 만나 전주공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회사에서 (전주공장 가동률 하락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전주공장 방향성은 수소로 정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짐
 - 현대차는 현재 전주공장에서 수소연료로 움직이는 광역·통근버스를 생산 중이며, 지난해 말부터 올 3월까지 수소전기버스 연간 생산 능력을 기존 500대에서 3,100대로 늘림
- **LS일렉트릭, EPC 수주 혼풍…수소연료전지까지 확대**(24.6.24, CEO스코어데일리)
 -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S일렉트릭은 국내 최대 규모 간척지 태양광 발전소 구축 사업자로 선정
 - LS일렉트릭의 EPC 사업은 태양광, ESS 등의 프로젝트를 수주한 데 이어 중장기 성장동력으로 수소연료전지 프로젝트까지 확장해 나갈 구상
- **에스퓨얼셀, 데이터센터 연료전지 설치로 해법 '제시'**(24.6.24, 가스신문)
 - 국내 연료전지 전문기업인 에스퓨얼셀은 경기도 내 데이터센터에 310kW 납품 완료했다고 밝힘
 - 이로써 에스퓨얼셀은 지난 2022년 말부터 현재까지 데이터센터 6곳에 총 580kW의 연료전지 실적을 확보했으며, 이 규모는 4인 가구 기준, 약 1,400 가구가 사용하는 전기사용량

□ 정부

○ 산업부, 수소발전 입찰시장 산정 개정안 준비('24.6.24, 가스신문)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1일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수소발전 입찰시장에 대한 구매자별 구매량을 산정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구매자별 구매량은 고시 제6조제1항에 따라 입찰시장 개설 직전연도 전력시장 전력거래량 비율로 배분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한다는 내용

□ 기관

○ 수자원공사, 밀양시와 친환경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 나서('24.6.24, 뉴스1)

- 한국수자원공사가 경남지역 최초 그린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을 위해 24일 밀양시와 '밀양댐 소수력 연계 그린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사업 시설공사 위·수탁 협약'을 체결
-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밀양댐 소수력발전(1.3MW)으로 얻어진 전력을 바탕으로, 2026년까지 1일 평균 226kg의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시설을 밀양댐 생태공원 내에 구축할 계획

□ 국내언론

○ 캐나다, 청정수소 생산 세액공제법 'CHITC' 본격 시행('24.6.24, 월간수소경제)

- 22일 캐나다 정부는 2024년 국가 예산 시행법 제1호 법안인 C-69에 대한 왕실의 재가를 받음에 따라 C-69에 포함된 법안들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힘
- C-69에는 청정수소 생산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 포함됐으며, 이 법은 청정수소 생산 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양에 따라 세액공제를 차등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함

II. 해외

□ 정부

○ 캐나다, 청정수소 투자세액공제법 통과('24.6.22, Hydrogen Insight)

- 적절한 수소 프로젝트에 투자의 15~40%를 제공하는 청정수소 투자세액공제법(ITC)가 법으로 통과됨

CI(kgCO2/kgH2)	ITC(%)
< 0.75	40
0.75~2	25
2~4	15

- 또한, 운송을 위해 청정 수소를 암모니아로 전환하는 장비에 대해 15%의 세금 공제 제공
- 추가성 원칙의 경우, 2022년 11월 3일 이후 신규 운영되는 재생에너지 생산시설로 제한함

○ 유럽 집행위원회가 독일 수소핵심네트워크 구축 사업 지원을 위한 30억 유로 규모 자금 지원 계획을 승인('24.6.21, Hydrogen Insight)

- 작년 11월 발표된 독일의 수소핵심네트워크 계획은 198억 유로 규모로 2025년부터 수소를 운송하고 2037년까지 주요 항구, 산업지구, 발전소, 저장시설 등을 연결하는 9,700km 길이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함
- 정부는 세전 기준 ROE 6.7%를 보장했으나 운영기업이 파산할 경우 총금액의 24%를 기업이, 나머지를 정부가 부담함
- EC가 승인한 30억 유로 보조금은 수소운송기업(TSOs)이 독일국영은행(KfW)으로부터 시장금리 이하의 대출을 허용

「수소에너지 현장으로 찾아가는 “수소ANSWER” 시즌2」 바로보기
 <매달 공개, 산업부 유튜브 채널>

<p>🎯 1화 인천 수소생산기지편 <u>“무한대로 생성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존재한다고!”</u></p>	
<p>🎯 2화 여수 수소출하센터편 <u>“현장에서 직접 알아보는 수소출하센터의 모든 것!”</u></p>	
<p>🎯 3화 원자력 청정수소편 <u>“깨끗한 수소를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구!”</u></p>	
<p>🎯 4화 인천 연료전지 발전소편 <u>“수소를 활용한 도심 속 발전소가 있다?!”</u></p>	
<p>🎯 5화 H2MEET 편 <u>“세계 최대 수소산업 전시회를 한국에서?!”</u></p>	
<p>🎯 6화 수소의 날 편 <u>“수소경제 활성화! 우리 함께 열심히 했어요!”</u></p>	
<p>🎯 7화 제주 그린수소 실증단지 편 <u>“바람으로 만드는 그린수소!”</u></p>	
<p>🎯 8화 수소안전 뮤지엄 편 <u>“국내 최초! 수소의 안전함을 홍보하는 수소안전 뮤지엄”</u></p>	
<p>🎯 9화 창원 액화수소 편 <u>“수소를 액화하면 부피가 800분의 1로 줄어든다고?!”</u></p>	

□ 2024년 수소산업 현장 규제개선 의견 수렴 안내

- H2KOREA 기업지원실에서 규제혁신을 통한 수소산업 생태계 확대를 위해 현장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상시 진행합니다.

* [링크 바로가기](#)  클릭

수소 규제 개선사항 의견 수렴 안내

□ 개요

○ 규제혁신을 통한 수소산업 생태계 확대를 위해 현장의 제도개선 사항 의견수렴 및 제도 개선 추진

-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간협의체*」를 통해 규제개선 신속 진행

* 주요 5개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워킹그룹 및 수소경제정책관 주재 본회의로 구성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 64건('24년 37건 해결) 이외 민간협의체 57건('24년 27건 해결) 추가 발굴

□ 제안 방법

○ (접수처) '수소경제 종합정보포털'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접수

- 웹페이지 내 '규제개선 - 규제접수' 메뉴를 통해 지원

※ (바로가기) <https://www.h2hub.or.kr/main/info/step1.do>

○ (접수기간) 상시접수(누적 접수건 연 2회 규제개선 안전 상정 진행예정)

※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간협의체 추진절차

2	3	4	5	6	7	8	9	10	11	12
○ 신규과제 발굴(H2K) - 기업 간담회 실시 (정부인프라구축사업자, 규제샌드박스 참여기업 등) / 포털 상시접수										
○ 신규과제검토 · H2K-실무WG 사전검토 · 유사기업발굴	○ 1차 신규과제 확정 · 관리카드 절달 (KGS 등 인 허가기관)	○ 발굴과제 검토 협의 · KGS 내부 검토 · 산업부(H2K) - 타부처 협의 검토	○ 협의 및 확정 · 타부처 협의 진행 · 전체회의 진행							
				○ 2차 신규과제 확정						
○ 개선사항 안내(차년도 1월)										

○ (문의처) 수소융합얼라이언스(H2KOREA) 기업지원실

- 정태원 선임연구원(02-6258-7460, twon@h2korea.or.kr)

- 신경철 선임연구원(02-6258-7483, kcshin@h2korea.or.kr)

- 황윤주 수석연구원(02-6258-7467, yunju117@h2korea.or.kr)